

“꽃 핀 쪽으로 뽀짝, 희망으로 뽀깡” 무등산 인문축제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오는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무등산 중심사 지구 일원에서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For:res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열리는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는 '숲속에서 즐기는 사색의 시간'을 선사, 다른 지역축제와 차별성을 보이며 호평을 받아왔다.

'꽃 핀 쪽으로 뽀짝, 희망으로 뽀깡'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올해 축제는 '지구(Earth)'라는 키워드를 통해 기후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꽃 핀 쪽으로'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마지막 장의 소재이며,

5월 31일~6월1일 이틀간 중심사 지구 일원서 열려 키워드 '지구', 마음의 길 등 6개 분야 60개 프로그램

'희망'은 우리 모두 변함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미한다.

키워드가 지구인 만큼 이번 축제에는 무등산국립공원을 비롯해 광주전남 녹색연합,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기후환경비건네트워킹 등 지역 내 환경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축제 대표 핵심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024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온 국민에게 희망을 전해준 한강 작가 관련 프로그램으로 ▲한강 작가의 문장으로 구성된 특별전시 '한강의 숲에서' ▲일

본 독자 60여 명을 초청, 소설의 배경이 된 공간들을 돌아보고 한국 독자와 교류의 시간을 갖는 '소년이 온다' 문학기행 등을 운영한다.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인문적인 고민을 담은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무등산 편백숲에 살고 있는 생물종을 찾아 나서는 생물 다양성 탐사 '생명을 기록하다', '쓰레기 피아노 아저씨' 작곡가 이승규와 함께하는 공연 프로그램 '엄 사이클 뮤직', 무등산의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종을 주민들과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안녕하세요, 무등산 동물님들' 등을 통해 축제를 찾은 주



민들로 하여금 기후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혜경 기자

강진 오감통에서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조만간' 활짝

강진찬가, 병영권무, 장사의 법칙 '3미3색' 진가 드러내

11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 두차례 강진 오감통 공연장

강진군의 '3미3색'을 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작 뮤지컬 '조만간' 프로젝트가 강진 오감통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조만간'은 '조선을 만나는 시간'이다.

'조만간' 프로젝트는 강진의 역사와 인물을 생생하게 재현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공연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전통 재현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흥미로운 뮤지컬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된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창작 뮤지컬의 대표 작품 '장사의 법칙'은 강진의 옛 장터를 배경으로 정직한 상인 정신과 공동체의 따뜻한 모습을 그려낸다. 강진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강진찬가'(단맛), 역동적인 전통무용을 담은 '병영권무'(매운맛), '장사의 법칙'(짠맛)으로 '3미3색'(단맛, 매운맛, 짠맛)이라는 테마로 구성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출연 배우들이

모두 강진군민이라는 것이다. 비록 아마추어 배우들이지만, 공연에 대한 진심과 열정은 전문 배우 못지않아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조만간' 프로젝트는 5월부터 11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2시 30분과 오후 2시 두 차례, 강진 오감통 야외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공연이 일시 중단된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강진원 이사장은 "꾸준한 행사 개최를 통해 시대 재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진의 역사 속 인물과 소재를 발굴해 '조만간' 프로젝트를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무대, 그리고 살아 숨 쉬는 지역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조만간' 프로젝트에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성원이 기대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오는 9월 광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특히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에 이어 '2026 전국도서관대회'까지 잇따라 유치에 성공, 광주의 문화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은 물론 국내·외 문화행사의 지속 개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박람회는 '급변하는 공동체 속 박물관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조명할 예정

국내 최대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광주서 열린다

광주시, 2회 박람회 유치... 전국 박물관·미술관·기업 한자리에 전시·포럼·체험행사·지역투어 운영... 문화중심도시 위상 강화

이다.

박람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과 관련 산업체, 문화기획사 등이 다수 참여한다. 행사는 기획전시, 포럼·강연, 체험행사, 실감콘텐츠, 비즈니스, 박물관·미술관 기념품 판매 등 전시·체험·산업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박람회에서는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 등 수집가들의 소장품을 재구성하는 등 그들의 생전 수집

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ICOM(국제박물관협의회)의 주제를 반영한 글로벌 박물관 트렌드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저출산·고령화·다문화 등 사회 변화와 박물관의 접점을 모색하는 전문가 강연·국제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또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관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와 함께 도심형

체험 전시와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역사관의 광주 설립,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국회사립관 광주분원 건립 등을 추진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문화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는 광주의 문화감성에 신기술과 세계적 담론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고, 광주의 미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전라남도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지역의 항쟁사를 직접 전달하는 5·18 역사해설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전남의 5·18 민주화운동에 관심 있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전문 해설 서비스를 해 5·18 역사를 바로 알리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됐으나 전남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역사적 장소가 지역에 흩어져 있다.

기억을 전하는 사람들... 전남도, 5·18 역사해설사 운영

전남도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 29곳을 '전남 5·18사적지'로 지정하고 정비했으며, 현재 역사해설사 18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역사해설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으로, 풍부한 해설 경험을 갖췄다. 전남 5·18 사적지 현장에서 도민과 학생, 관광객에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하

게 전달하는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5명 이상의 단체가 신청하면 해설사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을 바라는 경우 전남도로 답사 1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8개 코스 중 하루 최대 2개 코스까지 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신청자와 해설사가 일정과 해설코스, 순서를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다.

시군별 해설코스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남도 자치행정과 5·18민주화 및 과거사지원센터(061-286-3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전남의 5·18은 불의의 독재정권에 맞서 광주 시민과 함께 연대하고자 했던 전남도민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오월을 맞아 많은 분이 전남의 5·18 항쟁사에 관심을 갖고 해설 서비스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나주 고유의 '뵈' 천연염색, 프랑스 축제서 선보인다

제12회 프랑스 낭트 '한국의 봄' 축제 참가

전라남도 나주시가 프랑스 현지에서 지역 고유의 색인 천연염색 문화를 소개한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한국의 봄'(Le Printemps Coréen) 축제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나주의 전통 염색 기술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천연염색 작품 전시와 천연염색의 지속가능성, 친환경 가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전통 공예의 진면목을 유럽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의 봄'은 매년 프랑스 서부 낭트 지역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한국문화 축제이다. 공연과 전시, 영화와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유럽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복합 문화행사 성격으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했다.

재단은 축제에서 자연에서 얻은 색을 활용한 천연염색 원단과 다양한 의류 작품을 전시한다. 천연염색 기법과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한

국 전통미의 정수를 보여줌과 동시에 친환경 공예로서 천연염색이 지닌 지속가능한 가치를 강조한다.

아울러 '천연염색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의 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 발표자로 참여해 나주에서 재배되는 쪽(藍) 식물 염료의 특징과 활용 방식, 환경적 장점, 지속가능한 문화산업으로서의 천연염색 가능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의 이번 축제 참여는 천연염색 분야가 유럽 국가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첫 사례로 지역 전통 문화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이사장인 윤병태 시장은 "나주의 천연염색은 자연과 공존하며 만들어낸 한국 고유의 색과 철학을 담고 미적 아름다움 뿐 아니라 탄소 감축에 이바지하는 친환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프랑스 낭트 한국의 봄 축제를 통해 천연염색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양국의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